

#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드라마가 있다

드라마틱 강원여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평창·강릉·속초·정선

**드라마틱**강원여행



#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  
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http://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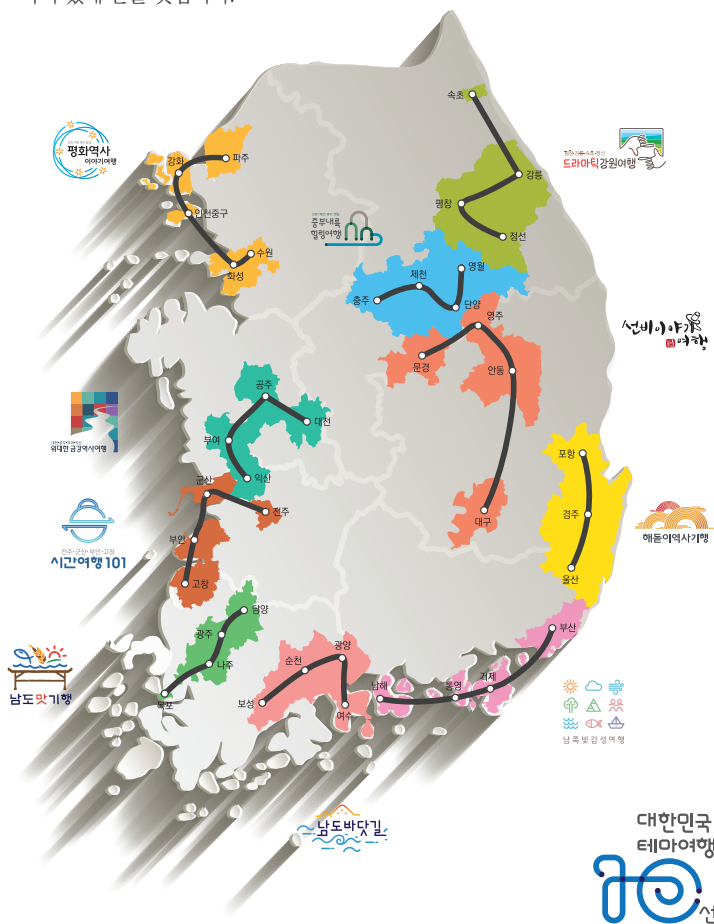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http://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정선

20. 평창

26. 강릉

36. 속초

그곳의 기억

.....

14-19. 정선

22-25. 평창

28-33. 강릉

38-41. 속초

43.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

44. 축제

46.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

48. 숙박

50. 교통

# 드라마틱한 경관의 강원도에서 만드는 내 인생의 이야기



평창



드라마틱 강원여행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할 만큼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강원도의 산과 바다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빛나는 삶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깊고 깊은 산과 바다가 내 스토리의 배경이 된다면 이 보다 더 드라마틱한 여행이 또 있을까?

차를 타고 강원도에 들어서면 어느새 높아진 산자락이 주는 경외감이 먼저 우리를 맞이합니다. 주변의 밋밋했던 산들은 점점 높아지고, 수풀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탁 트인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그래서 강원도는 드라마틱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의 극적인 만남을 만끽하기 위해 우리는 봄과 가을에는 산으로,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순백의 스키장으로 떠납니다. 강원도야말로 드라마틱 한 국내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강원도에는 곳곳에 각종 드라마 촬영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귀가시계라 불리며 64.5%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모래시계>,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전나무 숲과 푸른 바닷가로 모이게 만든 <도깨비>,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 컷을 만든 <미스터 션샤인>까지. 사람들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았던 드라마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사계절 중 어느 때에 찾아도 그 순간만의 특별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틱 강원여행 권역에서 나만의 드라마를 만드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정선 아리힐스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만날 수 있는 정선아리랑의 본 고장인 정선은 높고 가파른 산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최고봉인 함백산(1,573m)을 비롯하여 가리왕산(1,561m), 백운산(1,426m), 노추산(1,322m), 석병산(1,055m), 박지산(1,394m), 중봉산(1,284m), 청옥산(1,256m)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연이어 솟아 있어 산들의 자태만으로도 웅장한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첩첩이 둘러싸인 고갯마루마다 사연들도 많습니다.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산 모두 묻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낳아 달라고, 석 달 열흘 노구에 정성을 말구, 타관 백리, 외로이 난 사람, 니가 팔세를 마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요”라는 정선아리랑의 가사만큼 절절한 민초들의 사연과 전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에 나오는 전통시장으로 각종 산나물과 약초를 만날 수 있는 아리랑 시장과 두 갈래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나루인 아우라지 등이 정선에서 대표적으로 가 볼만한 곳입니다. 강화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어 허공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국내 최초 스카이워크와 아시아 최장 짙와이어를 즐길 수 있는 아리힐스, 폐광된 삼척 탄좌 시설을 문화예술단지로 새롭게 꾸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삼탄아트마인 등도 정선의 문화시설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심금을 적시는 민요, 아리랑.  
그 애절한 가사를 음미하며 돌아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정선입니다.



## 삼탄아트마인

활황을누리던 석탄산업은 90년대  
에 몰락하고 폐허처럼 남아 잊혀질  
수 있었던 폐광은 공간 업사이클링  
을 통해 근대산업현장으로 남겨졌  
다. 아트센터 4층 건물과 광산작업장  
을 그대로 보존한 레일바이뮤지엄,  
야외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아트센  
터 4층은 예술가들이 머물며 예술 활  
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룸이다. 방  
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며져, 마리오  
네트 뮤지엄 룸은 드라마 <태양의 후  
예> 촬영 시 배우 송중기가 머물렀  
던 곳이다. 2층의 마인갤러리에서는  
송해교가 납치된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45-44 ☎ 033-591-3001



## 아리힐스

국내 최초로 생긴 병방치스카이워크에 서면 한반도 지형으로 생긴 밤섬과 굽이치는 동강, 겹겹이 쌓인 험준한 산맥이 한 눈에 보인다. 해발 861m 절벽 허공에 세워져 있어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하다. 좀 더 용기가 있다면 질와이어를 타보자. 아시아 최고 높이인 325.5m에서 출발해 병방산의 계곡 사이를 활강하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35 ☎ 033-563-4100, 3600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나는 불꽃이오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_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에서



정선 정암사



## 아리랑시장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하나인 '정선아리랑'의 도시다. 척박한 산골의 삶을 담은 구슬픈 노래와는 달리 아리랑 시장은 활기찬 생명력을 뿜어낸다. 매달 2와 7로 끝나는 날에 열리는 장터는 1980년대 정선오일장 관광열차와 함께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표적인 지역농산물은 단연 산나물이다. 곤드레나물은 물론 어수리와 새취나물도 맛이 좋다. 질 좋은 토양에서 캔 나물을 수년간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정선 나물은 약으로 먹어도 좋다고 할 정도다. 자박한 기름에 구운 메밀전병과 수수부꾸미로 배를 채우는 것도 잊지 말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39 ☎ 1544-9053(관광안내소)



## 아우라지

송천과 골지천 두 갈래 물길이 한데 모여 아우러지는 나루라고 해서 아우라지라 부른다. 성격이 다른 두 물살을 의인화한 것인지 처녀총각 조각상에는 애뜻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여랑리에 살던 총각이 강 건너 양지마을 처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폭우로 불어난 강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었는데 이 이야기는 정선 아리랑가사로 전해진다. 아우라지 내에 레일바이크를 꼭 타보는걸 추천한다.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는 철로와 땡 뚫린 계곡, 어두운 동굴을 지나는 코스가 인기만점. 방문자가 많으니 꼭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 1544-9053







해질녘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고 저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온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  
 이 때는 선도 악도  
 모두 붉을 뿐이다

\_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중에서



## 해발 700m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동, 그 감동의 주인공이 되자

평창은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으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올림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사실만으로도 평창이라는 도시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커집니다. 하지만 동계 올림픽의 유명세에 가려진 평창의 수려한 산과 자연은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빼어난 아름다움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전나무 숲 길이 있는 오대산 월정사와 대한민국의 알프스라 불리며 계절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매력과 목장의 드넓은 초원을 볼 수 있는 대관령 양떼목장,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은 물론 가산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효석 문학관도 문학의 향기에 젖어 들기에 좋은 곳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겨울을 보여준 대표 주자인 평창, 겨울이 이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면 그 어떤 계절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해발 700m에서 느껴지는 벅찬 감동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상쾌함까지 평창이 선사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창 대관령 삼양목장



## 백룡동굴

동강이 이곳 석회암지대를 만나며 형성된 동굴이다. 총 길이 1.8km 중 775m의 A구간을 공개하고 있다. 내부는 검붉은 암석이 천장과 바닥에서 두서없이 올라온 자연조각 전시장이다. 생태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동선만 만들어 때로는 좁은 구멍을 엮드려 통과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자녀도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 헬멧과 안전복을 착용하고 헤드랜턴을 착용해야 비로소 둘러볼 수 있는 진정한 동굴탐방이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033-334-7200







## 이효석문학관

향수 문학의 선구자 이효석은 〈메밀꽃 필 무렵〉에서 자신의 고향을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기념비적 단편을 만들어 냈다. 서양 문물을 찾아 방황하던 지식인으로서 이방을 떠돌며 쌓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문학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생가가 있는 문학관은 작가의 집필실과 서재를 재현했으며 효석 달빛언덕은 〈메밀꽃 필 무렵〉속 마을처럼 꾸며졌다. 9월 초 메밀꽃이 필 무렵, 메밀과 소설 내용을 담은 효석문화제가 열린다. 1936년 『조광(朝光)』 10월호에 「메밀꽃 필 무렵」이 원제로 발표된 〈메밀꽃 필 무렵〉은 이효석이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낸 평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 033-330-2700



## 오대산 월정사

신라의 천년고찰 월정사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고 지역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승군이 자체 방어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한국전쟁 당시 후퇴하는 아군에 의해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극락으로 가는 관문인 월정사의 일주문은 1,800여 그루의 전나무가 1km나 길게 늘어선 천년의 숲과 이어져 있어 인기다. 숲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듯 청명하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도깨비>에서 고백하던 장면의 배경으로 나온 전나무 숲길은 관광객들의 인기 방문지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033-339-6800





## 대관령양떼목장

해발 700미터의 고지대에 1988년 최초의 체험목장이 문을 열었다. 유연한 곡선의 구릉을 따라 양들이 풀을 뜯는다. 초원을 거닐며 운동을 하는 과정으로 스트레스 없이 자란 양들이라 보기에든 마음이 편하다. 푸른 벌판 넘어 우거진 숲은 봄을 부르고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한 뒤 가을로 물들고 눈 내리는 겨울을 준비한다. 흔히 보는 윈도우 바탕화면처럼 질리지 않고 편안한 풍경이다. 약 6만 2천 평 정도의 목장에 능선을 따라 1.4km의 산책길 울타리를 따라 1시간을 둘러 가면 축사에 닿는다. 어린 양부터 어미 양까지 고루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 033-335-1966

## 아름다운 바다, 진한 커피향, 그 누가 이 곳에서 사랑에 빠지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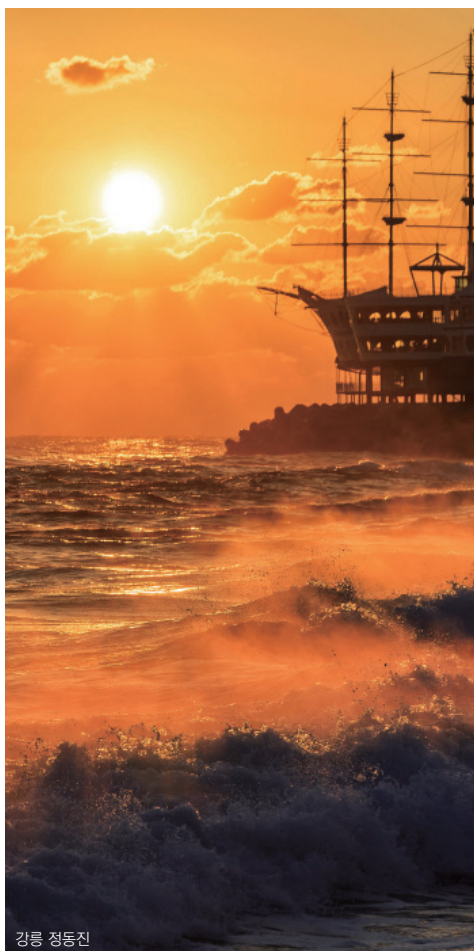


강릉 주문진

‘강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입니다. 무언가를 잊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친구나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바다를 찾습니다. 혼자여도 좋고, 둘이어도 좋고, 때로는 여럿이 함께여도 좋습니다. 혼자인 사람에게 바다는 친구가 되어주고, 연인

에게는 사랑이 되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바다는 우정이 됩니다. 바다는 하나이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배경이 되었던 정동진과 동해안 최대의 백사장을 자랑하는 경포 해변,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였던 주문진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강릉의 바다가 눈앞 가득 펼쳐집니다. 바다가 배경이 되어 준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드라마처럼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오죽헌과 강릉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문화를 이어주는 명주동, 대한민국 최초로 커피축제가 열리고, 직접 로스팅 한 커피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에는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와 커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이 오묘하게 어울려 기대 이상의 멋진 듀엣을 이루는 곳, 강릉. 바다의 깊이와 취하고 그윽한 커피의 향에 취해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



강릉 정동진



## 명주동

명주동은 강릉의 옛 이름이자 원도심이다. 행정 중심지로 발전한 명주동은 강릉시청으로 이어져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시청이 홍제동으로 옮겨지면서 동네의 시간은 멈추었다. 덕분에 아날로그 감성은 고스란히 남았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왔던 방송국도 그대로다. 골목은 발에 차이는 조약돌처럼 시대의 흔적을 남겼다. 옛 토성 위에 지은 집과 일제강점기에 적이 두고 간 집, 80년대 좁은 담벼락까지 말이다.

이런 문화를 오랜 기간 어여삐 여기던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꾸려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강릉문화재단과 함께 문화, 예술 판을 벌이고, 살아있는 마을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로 나섰다. 마을 초입에 있는 햇살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박물관이다.

도민증과 담배갑, 집안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오브젝트 명주'라는 이름으로 전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참새처럼 들르는 곳은 봉봉 방앗간이다. 국수공장에서 떡집으로 바뀐 방앗간은 지금 카페로 운영된다.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 033-640-4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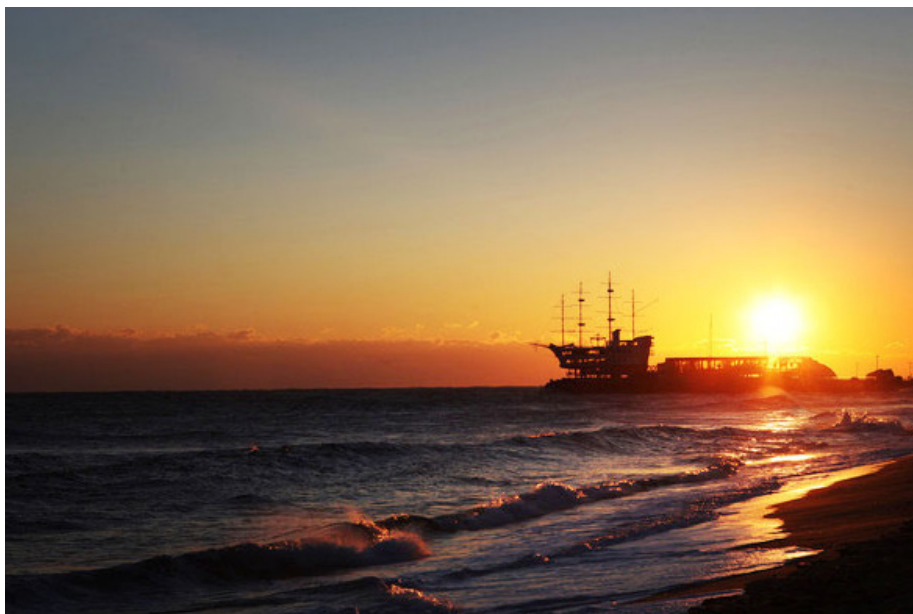




## 오죽헌

강원도의 예향을 대표하는 오죽헌은 신사임당이 자란 곳이자 율곡 이이를 낳은 곳이다. 오늘날 오죽헌은 학습의 산실이자 정서의 장이라 한다. 남자가 사용하는 사랑채와 여자가 사용하는 안채가 담장을 두지 않아 남녀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다. 인간에게 있어 높고 낮음이 없고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니 인간의 근본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 신사임당의 7자녀 중 율곡 이이는 장성하여 아홉 번이나 장원 급제에 오른다. 정조가 오죽헌에 대해 이야기하다 율곡 이이가 사람의 기본소양인 9가지 용모와 9가지 생각을 적은 저서 <격몽요결>을 듣게 되었고, 내용에 크게 감동하여 저서와 율곡 이이의 벼루를 한양으로 가져온 후, 책 서문과 벼루 뒤 용에 비유한 존경의 글을 써서 보냈더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 033-660-3304



## 정동진

낭만주의자들은 밤기차에 몸을 싣는다. 새벽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려 뜨끈한 황태국으로 몸을 녹인 뒤 해를 기다린다. 정동진 역에는 <모래시계>의 소나무가 서있고 해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밀레니엄 모래시계가 있다. 1년 동안 모래가 다 떨어지면 육중한 모래시계를 굴러 뒤집는 행사를 한다. 검푸른 동해바다에서 떠오른 해는 절벽 위 선크루즈 리조트를 배경으로 정동진만의 일출풍경을 만들어 연인들의 일출 성지이자 새해 여행코스  
로 유명하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역길 17

## 안목커피거리

80~90년대만 해도 '길다방'으로 불리던 안목해변 커피자판기는 한때 80개까지 있었다. 자판기 주인도 자부심이 있어서 배합을 달리하거나 특별메뉴를 넣기도 했다. 당연히 우열을 가리는 커피감별사들이 안목해변을 찾았다. 바리스타 1세대가 안목해변에 정착하고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추출하는 로스터리 카페가 30곳 넘게 들어섰다. 고소한 커피에 짭조름한 바다향이 더해서 안목의 커피는 유일한 장르를 만들어낸다. 커피와 바다 이 얼마나 낭만적인 조합인가. 더 이상의 배합은 사양한다.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20-1



## 경포 해변

경포는 경포해변인 외호(外湖)와 경포호수인 내호(內湖)로 나뉘어 있다. 송강 정철은 경포대에 올라 이 곳의 경치를 보고 관동팔경 중 첫째로 꼽힌다 하여 '제일강산'이란 현판을 달았다. 경포호수는 수면이 거울처럼 맑다 하여 경호라고도 불렸다. 하늘의 달과 호수의 달, 바다의 달과 술잔에 비친 달, 그리고 사랑하는 님의 눈에 비친 달 등 경포호의 5개의 달 이야기를 덧붙여 강릉소주 '경월'이 출시되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1-9







## 주문진

주문진의 약 7km의 사근진 해안길을 걷다 보면 연곡해변의 울창한 송림이 나오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영진해변의 방파제가 길을 막는다. 주문진 수산시장은 걷다가 출출해진 배를 채워주고 삶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해준다. 주문진 끝에 위치한 소돌해변에는 수억 년 전 지각변동으로 융기한 바위가 파도에 시달려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기도를 들어준다는 소원바위, 코끼리바위와 소돌바위 등 상상으로 다채로워지는 지질여행이다.

### 주문진 로드트립 코스

사근진 해변 ~ 연곡 해변 : 6.68km, 도보 1시간 40분, 자전거 30분

연곡 해변 ~ 영진 해변 방파제 : 3.28km, 도보 50분, 자전거 15분

영진 해변 방파제 ~ 주문진 수산시장 : 1.45km, 도보 20분, 자전거 5분

주문진 수산시장 ~ 소돌해변 : 2.42km, 도보 40분, 자전거 10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 033-662-2106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_ 드라마 <남자친구> 중에서

속초 외옹지 해안길





속초 항구 입항 모습

## 높이와 깊이, 그 모두를 만나는 드라마

높고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속초는 여행의 높이와 깊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 설악산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동쪽으로 동해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산의 정취와 바다의 깊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오전에 설악산 정상에 올라 수려한 자연을 굽어보고, 오후에는 호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보고, 저녁에는 바다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 여행지. 이것만으로도 속초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 함경도 출신 실학민과 그 후손들이 정착해 이루어진 아바이마을, 속초의 모든 맛을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관광수산시장과 속초가 간직한 독특한 민속문화를 만날 수 있는 시립 박물관까지, 속초가 지닌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속초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은 다양한 먹거리입니다.

온갖 종류의 생선회와 성게알, 해산, 전복 등 싱싱한 해산물을 사시사철 만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물회 맛집이 즐비하며, 닭강정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출출한 여행객을 유혹합니다. 아바이마을에서 만나는 이북식 순대는 풍성한 맛의 즐거움에 눈뜨게 하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홍게와 대게, 설악산에서 나오는 건강한 약초와 산나물을 맘껏 즐길 수 있습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음식이면 음식, 속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높이와 깊이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풍성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청초호 호수공원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_드라마 <도깨비> 중에서





## 청초호

바닷가 모래톱이 쌓여 호수가 된 청초호는 바다와 면해 있는 모래를 파내 다시 바다가 되면서 자연스레 내항이 되었다. 요트를 정박시키고 태풍이 불 때는 어선들이 대피한다. 한철 머물다 가는 철새도 청초호에서 쉬었다 간다. 타워 꼭대기의 전망대에 서면 동해 바다와 조도를, 설악산의 울산바위까지 조망할 수 있다.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75m의 해상보행교 끝에는 팔각정자 청초정이 있다. 밤에는 과하지 않고 은은한 불빛으로 호수를 밝힌다.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 033-639-2690



## 아바이마을

함경도 피난민들이 고향과 가까운 곳에 정착한 마을이다. 세월은 그렇게 60년이 훌쩍 흘러 누군가의 반평생, 누군가의 일생이 모여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나이 든 남자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따라 마을 이름이 되었다. 실험민 2세대가 여전히 바다와 함께 살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시내로 나가려면 타야 하는 갯배 만큼 여유로운 시간이 매력인 아바이마을은 함경도 사람들의 터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122-1 ☎ 033-639-2690



## 속초관광수산시장

1990년 개설된 이곳은 동해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과 건어물, 농산물과 의류잡화를 팔던 재래시장이 관광수산시장으로 바뀌었다. 손바닥만 한 새우튀김과 아바이마을의 대표 음식인 오징어순대, 명태순대가 발을 잡는다. 닭강정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 지하 수산물시장은 활어와 새우, 해산물을 즉석에서 손질하고 일명 '초장집'으로 불리는 식당에서 먹고 갈 수도 있다. 미각중심주의 여행이라면 이곳을 놓치지 말자.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47번길 16

## 속초시립박물관

높은 동해파도와 겨울이면 살을 에는 추위는 속초 사람들의 삶을 짝박하게 만들었다. 시립 박물관은 나고 자란 땅에서 순응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2005년 11월에 개관했다. 박물관 내부에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역사와 유적,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촌 문화, 바다를 터전으로 한 어촌문화, 속초를 함께 일궈낸 신향민 문화까지 다채롭다. 외부의 신향민문화촌은 이북의 5개 도의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 쌍채집, 함경도 집, 황해도집이 재현되어 있으며 숙박도 가능하다.

강원도 속초시 신흥2길 16 ☎ 033-639-2977





## 설악산

서울 북한산의 6배 정도 되는 면적의 장대한 산으로 네 개의 시군을 두루 살핀다. 속초에는 울산바위와 흔들바위, 비룡폭포와 신흥사가 속해 있다.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단숨에 오를 수 있다. 덕분에 어린 아이와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설악산의 절경을 쉽게 볼 수 있다. 기이한 생김새의 봉우리와 가파른 능선, 가까워진 하늘만큼 발아래 풍경이 아득하다.

### 권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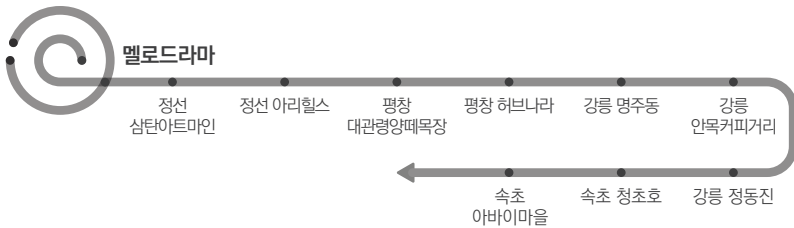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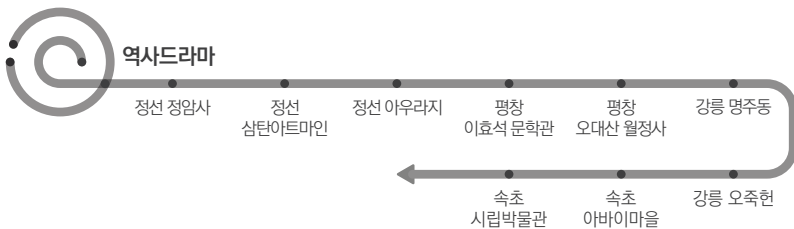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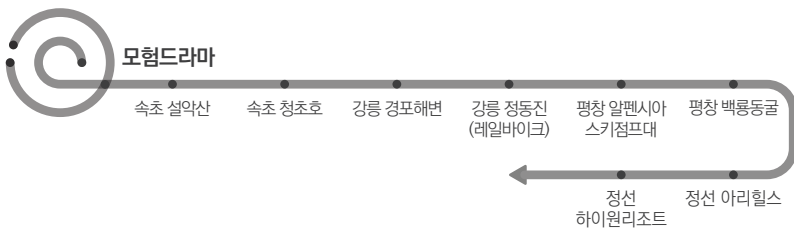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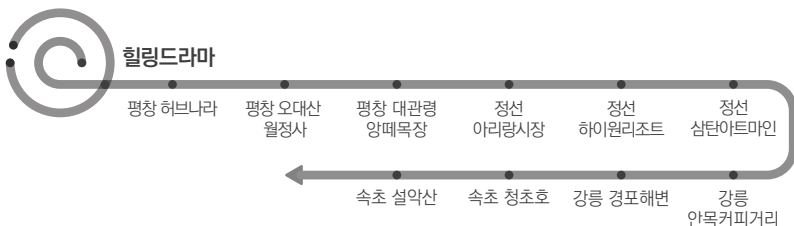
케이블카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권금성에 도착한다.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졌는데 권씨와 김씨 성을 가진 고려 장수가 하룻밤 만에 성을 쌓았다고 하여 권금성이라 불린다. 성벽은 무너지고 터만 남았으나 산세를 보니 천혜의 요새가 따로 없다. 정상에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달리 바위에 기대 올곧게 자란 소나무 두 그루가 인상적이다. 그 뒤로 공룡능선과 만물상, 노적봉, 토왕성 폭포가 자리한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091(설악동) ☎ 033-636-7700

길이란 걷은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_ 드라마 <미생> 중에서





## 인생은 아름다워라~ 낭만 가득한 즐거움 속으로!

### 정선 아리랑제

정선아리랑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 아리랑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이루기 위한 축제로 자연, 사람, 아리랑이 함께하는 축제이다. 10월 초 중순경 풍요의 계절에 정선아리랑 및 이주 교포들의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해외아리랑과 지역아리랑(북한, 밀양, 진도, 서도 등)을 포함하여 민족의 정서를 가득 담은 아리랑을 만날 수 있다.

시기. 10월 T. 033-563-2646

### 평창 효석문화제

생애 단 한번 아름다운 사랑을 추억하는 첫사랑의 마을로 당신을 초대한다. 달빛아래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밭에서 일어난 생애 단 한번의 사랑, 작품의 실제 무대가 되었던 봉평 메밀밭에서 펼쳐지는 첫사랑을 추억하는 축제,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옛날을 추억하며 시골마을의 넉넉한 인심과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기. 9월 T. 033-335-2323



평창 효석문화제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강릉 커피축제

어느새 커피의 도시가 된 강릉. 커피 향 가득한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부터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수많은 카페의 커피 향이 강릉의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향긋해진다. 커피로 유명한 도시인만큼 커피축제도 열리는데, 어느덧 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축제에서는 커피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커피 로스팅 체험, 커피와 티매장, 커피와 곁들이는 마카롱, 제빵도 맛보고, 강릉의 특산품과 각종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다양한 커피 관련 전시와 버스킹 공연 등 커피향 가득한 향기로운 축제다.

시기. 10월 T. 033-647-6802



속초 빛축제

## 속초 빛축제

청초호수의 수려한 야간경관에 빛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도심형 야간축제로 아름다운 단풍이 물드는 속초의 계절적 특성과 어우러져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단풍이 짙게 물든 설악산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청초호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시기. 10월 T. 033-639-2545



정선 아리랑제



속초 빛축제



강릉 커피축제

## 이 순간을 즐겨라! 추억이 풍성해지는 그날의 맛

### 정선-곤드레밥

정선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밥은 정선의 특산물인 곤드레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곤드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며 변비나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선을 찾는 사람들은 투박하지만 인심 가득한 곤드레밥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 평창-메밀음식

메밀은 피를 맑게해주고 소화가 잘되며 피부미용에 좋아 특히 여성들의 미용식으로 손색없는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메밀은 평창의 대표적 식품으로 매년 메밀막국수, 메밀 전병, 메밀 쪼빵 등 다양한 음식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강릉-초당두부

허균선생의 부친인 초당(草堂) 허엽이 강릉에 거주할 때 콩을 가공하고, 깨끗한 바닷물로 간을 맞추어 두부를 만든 후 본인의 호를 붙인 것에 유래.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우며, 뒷맛이 깔끔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 속초-아바이순대

아바이순대는 함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속초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오징어에 주식과 부식을 섞어 넣어 순대를 만들어 먹던 방식이 속초 아바이순대의 기원이 되었다.

## 숙박 안내

### 정선

|         |                         |               |                    |                                                                                   |
|---------|-------------------------|---------------|--------------------|-----------------------------------------------------------------------------------|
| 강과 소나무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br>나전리 328  | 010-2271-8523 | www.gangsol.com/   |  |
| 하이밸리 호텔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br>고한로 28-1 | 033-592-2003  | www.highvalley.kr/ |  |

### 평창

|             |                              |              |                      |                                                                                   |
|-------------|------------------------------|--------------|----------------------|-----------------------------------------------------------------------------------|
| 정강원<br>관광농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br>금당계곡로 2010-13 | 033-333-1011 | www.jeonggangwon.com |  |
| 숲속의 요정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br>팔송로 111-21    | 033-336-2225 | www.elfpension.com/  |  |

### 강릉

|                            |                           |              |                    |                                                                                     |
|----------------------------|---------------------------|--------------|--------------------|-------------------------------------------------------------------------------------|
| 선교장                        |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            | 033-646-3270 | www.knsgj.net      |    |
| 루소호텔                       | 강원도 강릉시 교동광장로<br>100번길 12 | 033-647-9400 | www.russohotel.com |    |
| 강릉<br>오죽한옥마을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14           | 033-655-1117 | www.ojuk.or.kr     |  |
| 베니키아 호텔<br>산과바다<br>주문진 리조트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br>해안로 2070  | 033-661-7400 | www.benikea.com    |  |

## 속초

|                     |                   |              |                       |                                                                                   |
|---------------------|-------------------|--------------|-----------------------|-----------------------------------------------------------------------------------|
| 위드유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93 | 033-631-3620 | withugh.modoo.at      |  |
| 아마란스 호텔             |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55    | 033-636-5252 | www.hotelamaranth.com |  |
| 베니키아 호텔<br>산과바다 대포항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691 | 033-635-6644 | www.benikea.com/      |  |
| 베니키아 호텔<br>산과바다 속초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707 | 033-635-9631 | www.benikea.com/      |  |



###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베니키아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통 안내

### 정선 시티투어버스

#### 아리랑열차 연계 코스



#### KTX 연계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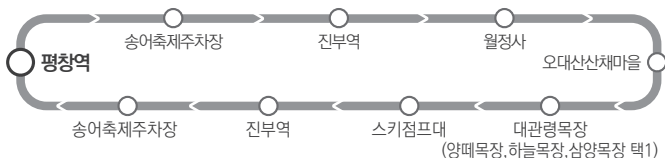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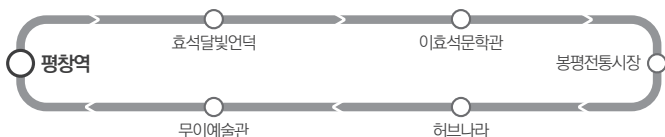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평창 시티투어버스

### 올림픽로드 코스 노선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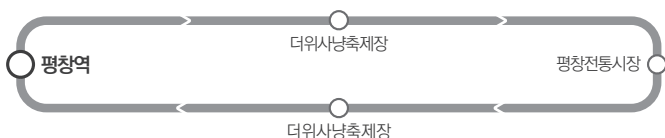
### 봉평장로드 노선38



### 진부장로드 노선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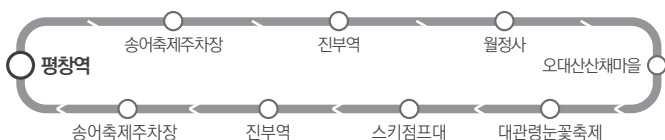
### 더위사냥로드 노선104



### 메밀꽃백일홍로드 노선142



### 대관령눈꽃로드 노선101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바다를 여행하고 오면  
옷가지에 묻은 바다 내음이  
도시까지 찬찬히 따라온다.  
그 내음이 그 어떤 향수보다  
기분 좋게 하루를 채운다.